

도내 교원 59.4% “교권 침해 경험”

전북교총, 535명 대상 교권 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동료 피해 목격이 88.8%

“교사 보호 시스템 실효성 높이고 악성 민원 대응 강화해야” 전북교육청에 촉구

전북지역 교원 10명 가운데 6명이 최근 3년 동안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 보호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은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5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4%는 최근 3년 이내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88.8%는 동료 교원의 피해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원 가운데 62.4%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개최하지 않은 이유로는 ‘열어도 소용없다’가 3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절차가 부담스럽다’(22.1%), ‘보복이 두려움’(21.3%) 순이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제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10.8%에 그쳤다.

관리자와 교사 간 교권 보호에 대한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관리자의 55.9%는 학교가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교사는 20.0%만 같은 의견을 보여 35.9%포인트의 인식 격차가 나타났다.

교육청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았다.

교사의 78.1% 부장교사의 82.7%는 교육청이 민원인 편을 드는 것으로 느낀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민원인의 요구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조사에서는 실제 신고를 경험한 교원은 4.9%에 불과했지만, 응답자의 88.9%는 관련 법조항이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전북교총은 실제 처벌 여부보다 신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교실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원의 심리적 소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3.3%가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11년 이상 20년 이하 경력 교원의 소진율은 8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73.5%는 자녀에게 교직을 권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85.6%는 동료 교원이 교육현장을 떠나는 사례를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전북교총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 취임한 전호성 교육감에게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발생 시 교육청의 직접 대응 △악성·반복 민원의 학교 외부 전달 처리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 △피해 교원의 심리 회복과 교단 복귀 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전북교총은 “교권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움과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신뢰 회복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권 보호 체계를 교육청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은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5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4주기 대학기관평가 5년 인증 유지

전북대, '최고 수준' 획득... 글로벌대학 역량 인정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이 시행한 4주기 대학기관평가 인증에서 최고 수준인 ‘인증’을 획득하며 2002년 2월까지 5년간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전북대는 이번 평가에서 △대학 경영 및 사회적 책무 △교과과정 및 교수·학습 △교원 및 직원 △학생지원 및 시설 등 모든 평가영역에서 인증 기준을 충족하며 우수한 교육 품질과 대학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평가단은 종합의견을 통해 전북대가 글로벌대학30 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RISE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한 교육환경과 혁신 역량을 갖춘 거점 국립대학교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학 차원의 발전계획과 성과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교육·연구·사회적 책무 전반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핵심역량 기반 교과과정 운영과 복수전공·융복합 교육 확대, AI교육센터 운영 등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으며, 또한 교수학습센터와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혁신과 교수·학습 지원 체계를 운영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학생 지원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북대학교는 다양한 장학제도와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전문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학생의 학업과 진로 심리·정서 지원 체계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AI SPACE 등 첨단 학습공간과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을 통해 미래형 교육 인프라 구축한 점을 대학의 대표적인 강점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전북대는 지역사회 및 타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연구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혁신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등 거점 국립대학교로서의 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김재훈 기자

학교 지원 중심 조직개편 착수

전북교육청, 현장지원기능 강화·미래 교육환경 변화 대응

13일까지 나라장터 통한 전문 연구기관 선정 위한 입찰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지원 중심의 효율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제20대 교육감 공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진단 및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문 연구기관 선정에 대한 입찰을 진행한다. 이번 용역은 규격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2단계 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며, 연구기관이 선정되면 7월 중 착수해 약 90일 동안 조직진단과 개편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미래 행정 수요를 분석하고, 기관과 부서별 기능 및 인력 운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또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분청은 정책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 지원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직속기관은 설립 목적과 기능에 맞게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학교 현장에 중심에 둔 조직 운영체계 구축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문헌 조사뿐 아니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집단면담(FGD)과 조직문화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요구와 교육행정 수요를 폭넓게 반영한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군산지음학교’ 내년 개교 준비 본격화

문화·예술·체육 특성화 교육 운영 군산지역 특수학교 과밀 해소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7년 개교를 앞둔 (가칭)군산지음학교의 운영계획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며 본격적인 개교 준비에 나섰다. 새 특수학교는 문화·예술·체육 분야를 특성화한 교과과정을 운영해 장애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키우는 한편, 군산지역 특수학교 과밀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일 군산교육지원청 위(We)센터 시청각실에서 군산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군산지음학교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7년 개교 예정인 군산지음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지 대어면 옛 대어초등학교 광산분교장 부지에 들어서는 군산지음학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일 군산교육지원청 위(We)센터 시청각실에서 군산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군산지음학교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등학교 전공과를 운영하는 21학급 규모의 특수학교로 조성된다.

학교는 학생들의 개별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체육 분야를 특성화해 장애 학생들의 소질과 적

성을 발달하고 진로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학교 설립 개요를 비롯해 교과과정 운영 방향, 전·입학 학생 배치 기준, 전공과 입학 전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전북교육청은 군산지음학교가 개교하면 지역 내 특수학교 과밀 문제를 완화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일 유초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개교를 앞둔 군산지음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부모들과 신뢰를 쌓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공간대를 넓혀 안정적인 개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 초교, 학교가 직접 만든 과목으로 미래교육 실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과과정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자율시간 운영 역량 강화에 나섰다. 학교가 직접 새로운 과목을 개발해 운영하는 학교자율시간 승인 과목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9개에 달해 전북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일 오후 전주나래 시청각실에서 초등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초등 학교자율시간 운영 전문성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2 개정 교과과정의 핵심 정책인 학교자율시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가 지역과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교과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자율시간 승인 과목 39개 '전국 최다'

도교육청, 초등 교원 대상 전문성 신장 워크숍

학교자율시간은 국가 교육과정에 없는 새로운 과목이나 교육활동을 학교가 학생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는 교과과정이다.

전북교육청은 2024년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교육감 승인 과목 18개를 운영한 데 이어, 2025년에는 5~6학년 과목 21개를 추가해 현재 모두 39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로, 학교 현장의 교과과정 연구와 개발 역량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향을 안내하고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회현초등

학교 최대인 교사와 이리모현초등학교 문효명 교사는 각각 ‘부부리 마을’과 ‘뽕나무’ 과목의 개발 과정과 교육과정 편성, 수업 운영 사례, 학생 성장 사례 등을 소개하며 학교 현장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 도내 15개 학교가 운영 중인 학교자율시간 과목을 전시하고, 각 학교 대표 교사들이 과목의 특징과 운영 방법을 직접 설명해 참석 교원들이 다양한 교과과정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학교 실정에 맞는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자율시간 과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8월 교육감 승인 과목

신청을 받은 뒤 9~10월 컨설팅과 심사를 거쳐 신규 승인 과목을 선정할 예정이며,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지역별 우수사례 발굴과 실행 중심 연수도 확대해 학교자율시간이 교육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호성 교육감은 “학교자율시간은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교과과정에 담아 학생들의 배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교과과정”이라며 “지역화와 다양화, 특성화를 지향하는 전북교육의 방향과 가장 잘 맞는 정책인 만큼 학교가 스스로 교과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과 우수사례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영어중점학교 현장 컨설팅

도내 초·중학교 17곳 대상 10월까지 운영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영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어중점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0월까지 도내 영어중점학교를 대상으로 2026년 영어중점학교 하반기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영어중점학교는 초등학교 8곳과 중학교 9곳 등 모두 17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각 학교는 학생들의 영어 노출 기회를 확대하고 실생활 중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 방식은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어교과형과 영어는 물론 일부 일반 교과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몰입형으로 나뉜다. 영어몰입형은 정규 교과과정 안에서 영어 사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현장 컨설팅은 학교별 특색 있는 영어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



고 우수 수업 사례를 발굴해 다른 학교에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단은 10월까지 학교별 일정에 맞춰 직접 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운영 계획, 예산 집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영어중점학교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학생과 교사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다양한 영어 체험 활동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응답했으며, 교사들은 동료 교사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영어 프로젝트와 활동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영어를 보다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오상근 기자